



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발행인의 데스크



마르틴 루터의 결혼과 가정생활

편집자 주:

10월31일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은 날입니다. 종교에 관한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난해한 작업인지를 잘 알고 있는 필자로서 이런 내용의 글을 대중 매체인 신문에 옮긴다는 것이 혹자에게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켈거리 제일 장로교회 소속인 필자는 수년 전 부터 주일 아침 9시 30분에 시작하여 10시 30분에 끝나는 1부 예배에 참석한 후 길 건너에 있는 캐나다인 First Lutheran Church 11시 예배에 참석합니다. 두 교회 이름 첫 글자가 '제일' 그리고 'First'라는 점이 저에게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닥아 오곤합니다. 제가 출생하여 유년부 때 출석했던 교회 이름이 '옥천 제일 장로교회'로 기억됩니다. 1977년 켈거리로 이민와서 첫 발을 디딘 곳이 제일장로교회였고 졸업 출석해왔습니다. 어린시절 제가 살던 집 골목 어귀에 있던 옥천 교회는 꿈 속에서도 그리운 곳이지요. 당시 담임 윤동현 목사님은 매우 겸손하시고 겸손하신 키가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장남 의환이가 저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는 고교시절 부터 기도하며 간구하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대구 계명대학을 마치고 광나루(?)에 있던 장신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의환이는 김진홍 목사님과 절친한 사이입니다.

고교 1학년 때 우연히 성당에 다니는 친구를 따라 옥천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성모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성모병원이라는 자그마한 간판이 붙어 있는 기와집 안으로 들어가있는 동안 필자는 성당 앞에 펼쳐져 있는 넓은 마당에서 시가지를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큰 아카시아 나무들은 짙은 꽃 향기를 뿜어 내고 있었지요. 갑자기 성당 뒷 편에 연결되어 있는 건물에서 검정색 긴 옷을 입고 키가 6척이 될것스러운 서양 남자가 두툼한 책을 들고 청명한 6월 하늘을 머리를 뒤로 젖혀서 쳐다 보면서 마당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움찔했으나 곧 신부님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무식한 속도로 그 분한테 달려갔습니다. 여하튼 백인이니까 미국 사람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Hello! How are you?" 영어로 짧게 대꾸하면서 담배 빨쑤리에 불을 붙이고는 성경책을 펴서 묵독하면서 넓은 마당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고교 1학년이었던 필자는 집요하게 그 분을 따라 붙이며 영어로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James Defino, 한국명은 지대건, 뉴욕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날 신부님과 그의 만남은 카투사로, 제대 후 미 8군 사령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영어권인 캐나다로 오게 된 운명적인 것이었습니다. 30세가 채 안 된 그 신부님은 매일 오후 5시 쯤 되면 성당 앞

뜰에 나와 있다가 필자가 나타나면 함께 잔디밭에 앉아 열심히 영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당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 여러명이 하루는 우리가 앉아 있던 벤치에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신부님! 왜 안길웅이는 성당에 안 다니고 교회에 다니는데 영어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성당에 다니는 우리는 안 가르쳐 주십니까?" 미국에서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말이 아주 서툴렀던 James Defino 신부님은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대꾸를 하지 못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필자에게 소위 꼬부랑 말의 기초를 닦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필자를 보고 "성당으로 나오라"는 권면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필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필자는 필경 개톨릭으로 고교시절에 개종(?) 했을 것이 뻔합니다. 저녁 6시에 종이 울리면 잔디에 조용히 일어나서 종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무엇인가 암송하며 성호를 그으시는 그 지대건 신부님의 자태가 그렇게 성스럽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보은, 황간 등지로 출장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성당에 다니던 한기택이라는 친구와 함께 들어서 기차를 타고 신부님이 출장 가신 황간으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역시 성당은 황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황간 시가지를 열심히 살펴 보시고 있던 신부님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 가는데도 인기척을 눈치 못 했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하고 큰 소리로 부르자 깜짝 놀라 일어서면서 우리를 반기셨습니다. "어떤 (교통 편으로) 여기까지 왔냐?"고 물으셨습니다. 기차를 타고 왔는데 차표 없이 "빠방"으로 오느라고 기차 안에서 승무원 눈치 보느라고 애 먹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왜 차표를 안 샀느냐?" "빠방 트는게 유쾌"이라고 설명했더니, "나쁘다. 나빠! 돌아 갈 때는 어떻게 할래?" "빠방 틀어야지요!" 우리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기택이 콩무늬를 따라 다녀야만 했던 필자는 식당에서 저녁 밥을 먹고 나서는 꼼짝없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미사?) 의식이 필자의 교회와는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기택이와 필자는 넓은 매트레스가 깔려 있는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시골에서 듣는 빠방새 소리는 더 청아하게 들렸습니다. 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은 독신으로 일생을 지내실까라는 궁금증이 빠꾸기 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뇌리를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천으로 가는 기차를 또 차표없이 "빠방"을 틀고 왔습니다. 옥천에서 고교생활 때 헤어진 후 16년이 지난 어느 날 덕수궁 부근에 있는 Anglican Church(영국 성공회?) 앞에서 뜻밖에 부딪쳤지요. 한국어를 너무나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한국말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옥천에서 영어 공부하던 그



<http://www.newspower.co.kr>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만 말씀하신 후 고개를 돌려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켈거리 성 안나 성당과 교우들을 통해 James Defino 신부님의 소재를 알아 보려 했지만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서울 명동 성당에 전화로 문의 했더니 몇 해 전에 한국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하신 것 같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미국 Marynoll(?) 선교회에 전화 문의했더니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면서 장례 미사 순서지를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전화로 알려 주었더니 다시 장례 미사 순서지가 왔는데, 아! 신부님, 신부님!

제 일생의 디딤돌을 놓아 주셨던 바로 그 지대건 신부님이었습니다.

10월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 난 달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행여 캐톨릭을 폄하하는 것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만을 다루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다는 변명을 하기 위해 편집 후기를 제 일생에 큰 획을 그어주신 미국인 JAMES DEFINO 신부님에 관하여 중언부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배
루터의 결혼신학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수도사가 수녀를 아내로 삼아 결혼한다는 일은 엄청난 사건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루터가 개혁을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사회적 변화로서 성직자가 결혼하는 것이었다. 루터는 종신 독신 서약이 성경의 교훈에 위배된다는 확신 속에서 온갖 악과 타락을 발생시킨 성직자의 독신제도를 반대했다. 또한 그는 결혼하지 않는 거룩한 성직자와 결혼으로 자녀를 가지는 세속화된 일반 신도를 나누는 역할, 즉 중세 로마 교회가 밀하는 결혼관을 비판했다.

루터는 실제 가정생활을 통하여 종교개혁 신학적 새로운 인간 실존의 모습을 선언한 것이다. 수도원 건물에 살면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려왔던 루터는 세계에 성직자들이나 기독교도들은 자유하다고 주장했다.

이제 루터는 결혼을 통해서 혈육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교황을 괴롭히고, 마귀를 안달하게 만들고 싶었다. 또한 결혼에 대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정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결혼에 대한 신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 전에 세상에 제정해 주신 제도를 로마의 독재로부터 구출하고 싶었다. 성직자들도 이 제도의 유익을 얻을 권리가 있음을 몸소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이로써 복음적 성직자들의 가정생활이 세상에 다시 있게 되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낙원에 세워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존중해 주신 결혼이라는 거룩한 상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 그는 결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불렀다. 루터는 결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결혼하고 살도록 지으셨다고 확신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혼하라는 도덕적 의무를 주셨다고 했다.

루터는 결혼을 하나님의 선물이며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했다. 루터는 성경적인 결혼신학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다. 루터는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거룩한 결혼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 결혼생활이 독신 생활보다 훨씬 따뜻하고 단정하다고 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지옥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루터는 결혼에 반대하는 자들은 인간으로 사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터는 "행복한 결혼 생활보다 더 감미로운 연합은 없

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과 루터의 결혼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으로 인해 독일 사회에 새로운 개혁의 물결이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1524년부터 농민들은 세속적인 권세자들에게 항거했으며, 수도사와 수녀들은 수도원 담을 넘어 탈주하였다. 그들이 세상으로 나오면서 결국 수도원들은 도처에서 텅텅 비어 있었다. 신부들의 결혼이 금지되었지만 그들은 이미 1521년부터 결혼을 감행하였다.

1525년은 루터에게 어려운 일들이 매우 많았다. 농민 전쟁의 실패와 함께 농민들의 지지를 많이 잃었을 뿐만 아니라 신변의 위협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루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수녀 카타리나 폰 보라(Katharina von Bora, 1499-1552년)와의 결혼이다.

사실 '범법자요 이단자'에서 언제 교수형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루터에게 결혼이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런 무거운 짐을 가족에게 지우기를 원치 않았다. 나이도 불혹을 넘긴 42세였다. 또한 가톨릭의 수도사였기 때문에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다.

루터는 성직자의 서약을 엄격히 지키면서 독신으로 남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무렵 수도원으로부터 텅 빈 생선 통 안에 숨어서 탈출한 12명의 수녀들이 있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한 그때가 1523년 4월 5일이었다. 수도원 탈출은 잡히면 바로 사형에 처하는 중한 죄였다. 거룩한 강도인 루터가 탈출을 도왔다. 그 중에 한 명이 카타리나이다. 그녀는 루터를 사랑했다. 루터를 설득시켜 결혼을 고집했다.

카타리나는 1499년 1월 29일에 작센의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독일 수녀원에 들어갔다. 1509년 16살이 되었을 때 카타리나는 마리에트론(Mariethron) 수도원에서 공식적인 서원을 하여 수녀로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가난했던 카타리나는 항상 두 가닥의 땀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외모나 교양이 특출하지는 않았지만 분별력이 있고 지적이었다. 루터보다 16살 연하였지만 그녀는 루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1525년 6월 13일 저녁에, 루터는 비텐베르크 시교회 부겐하겐(Bugenhagen) 목사의 주례로 26세인 카타리나와 불륜 수도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결혼은 가장 큰 반항을 일으켰다. 결혼은 루터에게 있어서 자신을 개혁해야 하는 하나의 큰 사건이었다. 루터의 사생활이 개혁된 것이다. 결국 루터는 독신을 청산하고 수녀 출신 카타리나를 아내로

맞이했다. 카타리나 역시 성직자 독신 생활의 굴레를 벗어나 진리의 자유 안에서 축복된 결혼이라는 진정한 삶을 시작한 그녀의 신학적 역할은 크고 위대했다.

루터가 결혼했다는 소식이 비텐베르크에 유포되면서 그 땅은 들쭉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결혼 소식을 믿지 않으려 했다. 또 적대자들은 결혼식이라는 그의 방종을 보면서 비방을 퍼부었다. 그가 정절 서약을 파기했다고 헐뜯었다.

루터는 적대자들이 자신의 결혼을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것을 명예로 간주했다. 가까운 친구들은 놀랐다. 친구 슈팔라틴은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라고 말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곧 루터의 결혼 소식이 전 세계로 전광석화처럼 날아갔다.

루터의 가정생활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의 지원으로 수도사를 위해 지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 1522년에 해체되었다. 프리드리히는 40개의 방이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건물을 결혼한 루터 부부가 살도록 선불했다. 이곳에서 보금자리를 꾸렸던 루터와 카타리나는 총 6명, 3남 3녀의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두 명의 딸을 잃게 되면서 루터는 자녀로 인한 부담감과 심적 고통을 느꼈다. 자신들의 죽음은 루터에게 있어서는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이다. 그는 두 명의 자녀를 잃는 아픔 속에서도 자기 일을 계속해 나갔다.

루터 부부는 자신의 아이들 외에도 다른 여섯 명의 조카들과 유럽 전역을 휩쓴 페스트로 고아 된 아이들 20여명도 같이 기르고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아꼈다. 그는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손님들까지 참석하는 가정 예배를 자주 드렸다. 루터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개인 기도를 가졌으며, 그 후 가족들과 함께 심계명과 사도신경, 주기도문, 시편 한편을 암송했다.

루터는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다. 저녁 식사 후에 루터 자신이 직접 류트(lute)와 플루트(flute) 같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과 음악, 독일어 찬송과 라틴어 찬송을 가족과 함께 불렀다. 특히 절기들, 성탄절이 오면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했다.

루터는 음악을 사랑했다. 그는 음악이야말로 우울증을 몰아내고 마귀의 유혹들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생각했다. 루터는 처음에는 결혼 생활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가정생활 속에서 많은 기쁨을 누렸다.

(..B면 2 페이지에 계속)